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인식의 관계*

홍미송(고려사이버대)**
염철현(고려사이버대)

《요약》

본 연구는 중국동포 초등학생에게 특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중국 연길시 G초등학교 5~6학년 동포초등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진로인식검사와 자아정체감 검사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하위요인은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결과는 성별 및 아버지 직업에 따라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등 진로인식의 모든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에 따라 자기이해와 진로태도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 학력, 어머니 직업에 따라서는 자기이해 영역에서만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진로태도 영역만 차이가 있었다. 하지

만 가정형편, 어머니 학력에 따른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인식 하위요인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검증결과는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인식의 하위요인별로 차별화된 진로교육이 필요하며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제고를 위해 자아정체감의 인지를 적극적으로 북돋아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진로인식, 자아정체감, 중국동포, 초등학생

I. 서론

개개인이 몰개인화 되던 과거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하던 의식과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보다 향상된 교육선진국들의 교육

* 이 논문은 홍미송(2017)의 고려사이버대 융합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meishong1976@gmail.com)

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교수법이 초등학교 교육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시켰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변화의 견인역할을 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개인의 개성, 적성, 특성을 존중하여 이루어진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시대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분화로 새로운 직업의 생성과 기존 직업의 소멸 주기가 짧아지고 고령화 등 사회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제2, 제3직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을 위해 진로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진로교육은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따른 적합한 진로를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배워서 적응과 발달을 꾀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교육활동이며(김충기 외, 2016)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전문화단계로 이루어진다(김충기, 2004).

초등학교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인식은 진로교육의 첫 단계로 미래 직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중심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처음 생각하게 된다(정여진, 2012). 따라서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실태를 파악하고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향상에 필요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학교 교직원, 교육산업 종사자 및 연구자, 교육 관련 공무원 등이 교수법과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실태 및 진로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박행모, 방기혁, 1999; 성낙철, 최준섭, 1999; 임경희, 2013), 자아정체감 등 변인과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희진, 2001; 정채기, 1991) 다문화학생의 진로에 관한 연구(김민정, 정미경, 2014, 조봉환, 2010) 등을 검토해보았을 때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내 거주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즉, 점점 더 개인의 개성과 다양화를 추구하는 사회 전반적 추세와 맞물려 개인에 초점을 맞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해외 출신의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는 매해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사회가 다문화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초등교육체계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상대적/절대적 숫자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 세계 255만 중국동포들 중 한국 국내에만 약 71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20여만 다문화가족 자녀 중 18%가 중국동포 자녀이다. 그 외 약19%를 차지하는 기타 중국계 다문화가족 자녀까지 포함 할 경우 중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초등학생 대상자들은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다누리, 2017; 외교부,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중국동포들은 그동안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한민족의 언어, 문자, 생활풍습, 교육, 예절 등 한민족의 고유성을

계승해 왔으며 한중 양국의 문화와 가치를 융합하여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동포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박정균, 2011; 우병국, 2010).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확신성과 유용성을 높게 지니고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아정체감을 지닌 학생은 진로결정 상태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신을 불신하고 가치 없다고 느끼는 불확실한 정체감을 지닌 학생은 무력감에 빠지면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정채기, 1991).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내거주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에 있는 동포초등학교의 경우 심지어 전문적인 진로교육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어(杜启明, 2013)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일반화되고 있으며 그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세분화되고 특수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한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들에 대한 기초적인 변인에 대한 자료는 메타데이터로서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앞으로도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 초등학령 단계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상자에 대한 연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인식 하위요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및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문화시대 중국동포들에게 적합한 특성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동포 초등학생

재외동포재단법(법제처, 2015)에 의하면, 중국동포(中國同胞)는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중국동포는 현재 ‘한국계 중국인(韓國系中國人)’, ‘재중동포(在中同胞)’, ‘중국교포(中國僑胞)’, ‘조선족(朝鮮族)’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귀화한 사람들도 있다. 중국동포들의 주요 거주지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중국 동북3성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 하고 있으며(양한순, 2015). 교육비부담이나 양육, 비자 등 문제로 중국에 있는 친인척에게 잠시 맡겨진 그 자녀들까지 입국할 경우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주(2008)는 모국과 이주한 국가, 이주자라는 삼각관계 속에 있는 이주자들은 모국과 이주국가에 모두 귀속 되어 있으나 또한 동시에 그 사이에 있는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중국동포들 역시 한반도라는 모국과 이주한 국가인 중국에서 양쪽 모두에 귀속 되어 있으나 또한 동시에 그 사이에 있는 중국동포만의 독특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중국동포 초등학생은 어려서부터 부모 및 조부모, 거주환경의 영향으로 여러 문화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많고 적응력이 강하며 폭넓은 식견과 안목, 성숙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경향이 크다(김상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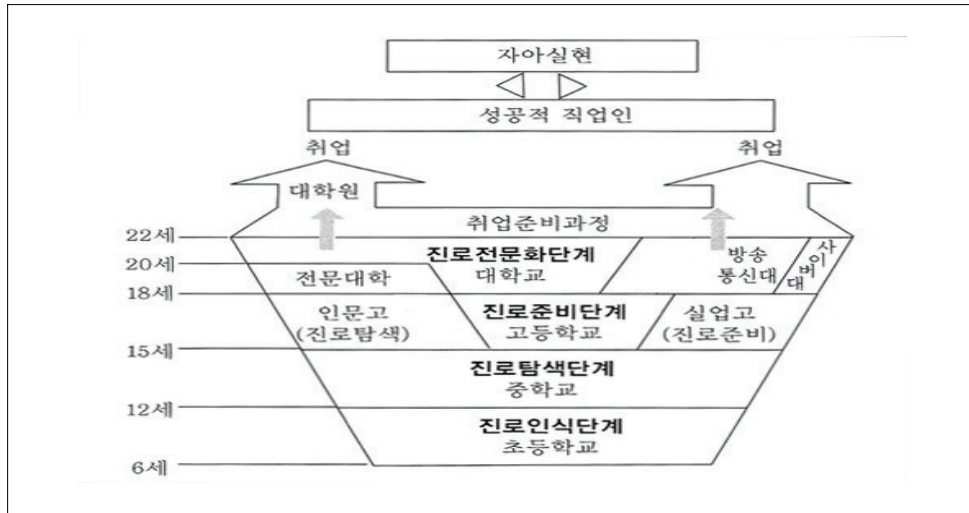
2. 진로인식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자기이해와 다양한 직업탐색을 통해 합리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진로태도를 형성하여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체적인 교육으로(김옥환, 2001) 긴 인생여정에서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①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정을 통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의 기초를 기르고, ② 직업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직업관을 형성하며, ③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면밀하게 준비하는 적극적인 진로태도를 확립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교육부, 2016; 이영대 외, 2004; 장석민, 2001; Hoyt, Kenneth B., et. al., 2004).

진로교육은 발달과정상 어느 특정단계에만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진로인식(career awareness)단계,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단계, 진로준비(career preparation)단계, 진로전문화(career specialization)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경험과정으로 이루어진다(김충기 외, 2016). 이와 같은 진로교육의 단계를 도형으로 표시하면 [그림 1] 과 같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인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형성 시키고 삶의 문제와 방향에 대하여 초보적인 인식을 성숙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11). 즉 진로인식이란 미래 직업을 선택할 때 선택의 준거가 되는 것이며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직업 소양을 구비하는 것이다(김충기, 2001; 신철, 1997). 따라서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진로인식에 초점을 두고 다양

한 학습활동과 경험을 통해 직업세계의 다양성과 복합성, 진로준비와 관련된 제반 특성, 개인의 진로와 생활양식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김충기, 1995).



출처: 김충기 외(2016).

[그림 1] 진로교육의 단계

김충기(2001)는 진로결정 요인을 개인적 차원, 사회경제적인 차원, 교육체제적인 차원 3가지 측면으로 보았으며, 개인적 차원은 다시 학년, 성, 능력, 인성, 직업적 흥미,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을 포함하는 내재적 요인과 부모 학력 및 직업,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성원, 종교, 교사의 영향,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외재적 요인, 즉 가정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서는 진로결정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변인, 심리적 특성변인,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김경주, 2011).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영향 주는 변인은 다양하게 있었으나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주로 살펴보면, 성별(김형균, 2014), 학년(조봉환, 2012), 가정형편(김자성, 최준섭, 2001), 부모 학력이나 부모 직업(권현하, 2004), 부모 동거여부(이종범, 정철영, 김봉환, 2005), 자아정체감(박성미, 2004)은 진로에 영향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한국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로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중국동포 초등학생으로 연구의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은 한국고용정보원(2017)에 따라 자기이해, 직업세계인식, 진로태도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3.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며(Erikson, 1968),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탐색적 질문에 언제나 일관성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기상(이현정, 2014)이다. 자아정체감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속한 민족, 국가,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 정체감은 소속된 집단에 잘 통합되는 경우에 발달하게 되며, 이러한 주관적 및 객관적 자아정체감은 어느 한 시기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에서 시작하여(조한숙, 2010), 특히 청소년기에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다(김수진, 2017).

19세기 말 중국으로 이주하여 삶의 터전을 형성한 중국동포들은 모국과 이주국가 사이에서 국가적 정체감과 민족 정체감을 동일시함과 동시에 그 사이에 있는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중국내의 타민족이나 집단으로부터 이러한 정체감을 인정받게 되면서 중국의 시민권을 가진 한 개체로서의 국가적 정체감과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감을 복합적으로 지닌 중국동포 자신만의 특유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었다(박정근,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의 자아정체감을 국가 정체감과 민족 정체감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이면서 또한 한민족이라는 독특성을 인지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보고자하며 그 하위요인은 송현옥(2008), 최윤희, 김순자(2011)의 분류기준에 따라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자기수용성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미래 확신성은 자신의 장래계획에 대한 확신과 희망의 정도이며, 목표지향성은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신뢰 및 과업수행에 대한 실현 의지를 말한다. 주도성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주도적인 실행의지를 말하며, 친밀성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유지를 위한 융통성 및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노출정도를 말한다(박아청, 1996).

4. 자아정체감과 진로인식의 관계

초등학교에서의 진로발달은 진로성숙, 진로의식, 진로발달, 진로인식 등 서로 다른 용어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동일한 개념으로 연구해왔으므로(이종범, 정철영, 2005) 자아정체감과 진로인식의 관계를 진로와 관련된 개념과의 포괄적의 관계로 살펴볼 수 있다. 자아정체감은 진로발달을 향상시키고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요인이며, 진로결정수준이나 진로성숙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진로관련 개념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봉환 외, 2017; 임정섭, 최영임, 김교현, 2012). 이로부터 자아정체감이 진로인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1> 자아정체감과 진로 관련 선행연구 분류

분류	연구자(연도)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	유준상, 서우석(2013), 조명실(2006), 홍향연, 유태명(2008),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문승태, 김연희(2003), 박미경(2009), 박수길(2001), 신종임(2010), 이미애(2011)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김우리, 박영희, 김정섭(2014), 이희선, 선우현정(2015)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고미나, 박재황(2008), 박아청, 우채영(2008), 허정철(2009)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는 <표 1>에서와 같이 주로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등 주요 진로관련 요소들과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다(이종화, 김현숙, 2012).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로 보면 자아정체감은 진로성숙의 중요한 변인이고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으며, 진로정체감 발달과 진로의사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및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17년 3월 22일부터 2017년 3월 23일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연결시 G초등학교 5~6학년 초등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 대상

구분		학년		전체
		5학년	6학년	
성별	남자	110명	76명	186명
	여자	138명	120명	258명
전체		248명	196명	444명

* 성별 결측값: 2명

2. 검사도구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한국고용정보원(2008), 어운경, 부재울(2009)의 초·등학생용 진로인식 검사도구와 박아청(2003)의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송현옥(2008)이 청소년 검사에 맞게 수정한 자아정체감 척도이다.

진로인식 검사의 세부적인 하위요인 및 문항번호는 <표 3>과 같다.

<표 3> 진로인식검사의 하위요인 및 문항번호

하위요인	세부 요인	문항번호	신뢰도
자기이해 (12문항)	자기탐색 (2문항)	1,2	$\alpha = .841$
	의사결정성향 (5문항)	3,4,5,6,7	
	대인관계성향 (5문항)	8,9,10,11,12	
직업세계 인식 (8문항)	직업편견 (역채점 5문항)	13,14,15,16,17	$\alpha = .665$
	직업가치관 (3문항)	18,19,20	
진로태도 (12문항)	진로준비성 (8문항)	21,22,23,24,25,26,27,28	$\alpha = .850$
	자기주도성 (4문항)	29,30,31,32	
전체		32문항	

자아정체감검사의 구체적인 하위요인, 측정내용 및 문항번호는 <표 4>와 같다. <표 3>, <표 4>에서와 같이 진로인식의 하위 변인인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와 자아정체감 모두 문항간의 내적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alpha = .665 \sim .850$).

<표 4> 자아정체감검사의 하위요인, 측정내용 및 문항번호

하위요인	측정내용	문항번호	신뢰도
자기수용성 (5문항)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	1,5,14,22,27	$\alpha=.655$
미래 확신성 (7문항)	자신의 장래 할 일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	2,6,10,15,18,20,23	
목표지향성 (6문항)	장래의 자아상을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을 신뢰하는 정도	3,7,11,16,19,21	
주도성 (5문항)	자신 주변의 일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정도	4,8,12,24,26	
친밀성 (4문항)	타인들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융통성과 주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9,13,17,25	
전체		27문항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t-검증과 일원분산 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후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인식의 하위요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빈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빈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5>, <표 6>와 같다.

<표 5> 범주형 변수의 빈도 분석 결과

변인	문항	빈도	퍼센트	비고	
인구통계 학적/ 사회경제 적 변인	부모 동거 여부	모두 동거	221	49.6%	n=446
		한 분만 동거	119	26.7%	
		동거하지 않음	70	15.7%	
		기타	36	8.1%	
	가정 형편	매우 가난하다	5	1.1%	n=446
		가난하다	25	5.6%	
		보통이다	324	72.6%	
		부유하다	76	17.0%	
		매우 부유하다	16	3.6%	
	부 학력	초졸	8	1.8%	n=439 (결측 7)
		중졸	38	8.5%	
		고졸	146	32.7%	
		대졸	196	43.9%	
		대학원 졸 이상	51	11.4%	
	모 학력	초졸	5	1.1%	n=442 (결측 4)
		중졸	53	11.9%	
		고졸	160	35.9%	
		대졸	168	37.7%	
		대학원 졸 이상	56	12.6%	
	부 직업	전문 관리직	84	18.8%	n=428 (결측 18)
사무직		78	17.5%		
판매/서비스직		63	14.1%		
생산직		53	12.4%		
기타		128	29.9%		
무직		22	5.1%		
모 직업	전문 관리직	86	19.3%	n=429 (결측 17)	
	사무직	79	17.7%		
	판매/서비스직	102	22.9%		
	생산직	18	4.0%		
	기타	98	22.0%		
	무직	46	10.3%		

빈도 분석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설문 대상자들은 부모 두 분과 모두 동거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49.6%), 가정형편은 보통(72.6%)이 제일 많았다.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모두 대졸(43.9%, 37.7%)이 제일 많았으며 아버지 직업은 기타(29.9%), 어머니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제일 많았다. 설문 대상자들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양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49.6%)는 50%도 되지 않았고, 가정형편이 부유하

거나(17%) 보통(72.6%)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며 매우 가난하다(1.1%)거나 가난하다(5.6%)고 생각하는 학생은 적었다.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모두 대졸(43.9%, 37.7%)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고졸(32.7%, 35.9%)과 대학원 졸업 이상(11.4%, 12.6%)으로 부모의 학력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아버지 직업과 어머니 직업은 전문관리직(18.8%, 19.3%), 사무직(17.5%, 17.7%), 판매/서비스직(14.1%, 22.9%), 생산직(12.4%, 4.0%), 기타(29.9%, 22.0%) 등 다양하게 있었으며 무직인 경우는 5.1%(아버지), 10.3%(어머니)였다.

<표 6>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자아정체감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자아정체감	1			
자기이해	.380**	1		
직업세계 인식	.307**	.166**	1	
진로태도	.356**	.350*	.317**	1

*** $p < .001$, ** $p < .01$, * $p < .05$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된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진로인식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166~.350으로 상대적으로 자아정체감과 관련성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인의 구분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

가. 학년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

학년별 진로인식 수준의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의 평균값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진로인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하위요인별로 자기이해와 진로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직업세계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학년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에 대한 t-검증 결과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3.72	3.94	3.33	3.42	3.80	3.96
표준편차	.713	.613	.561	.563	.713	.638
사례 수	248	198	248	198	248	198
t 통계값	-.351**		-1.873		-2.320*	

*** $p < .001$, ** $p < .01$, * $p < .05$

나. 성별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

성별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 차이는 <표 8>에 제시된 것과 같이 진로인식의 모든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8> 성별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에 대한 t-검증 결과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평균	3.73	3.87	3.15	3.52	3.77	3.95
표준편차	.678	.672	.511	.549	.722	.649
사례 수	186	258	186	258	186	258
t 통계값	-2.139*		-7.267***		-2.747**	

*** $p < .001$, ** $p < .01$, * $p < .05$

다. 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

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사후분석(Scheffe 검증)을 통해 차이가 나는 집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9>과 같이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인식은 부모 동거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진로태도는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두 분 모두 동거하는 집단이 동거하지 않는 집단 보다 진로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차이가 나는 집단을 분석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사후검증 결과 두 분 모두 동거하는 집단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 보다 진로태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제곱합	2.916	5.235	.364
자유도	3	3	3
평균 제곱	.972	1.745	.121
F	2.126	3.790	.381*
사후 분석 결과	-	-	두 분 모두 동거>동거하지 않음

*** $p < .001$, ** $p < .01$, * $p < .05$

라. 아버지 학력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

아버지 학력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의 차이는 <표 10>과 같이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직업세계 인식과 진로태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통해 각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집단이 중졸인 집단보다 자기이해 정도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0> 아버지 학력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제곱합	8.124	.855	1.705
자유도	4	4	4
평균 제곱	2.031	.214	.426
F	4.571***	.678	.906
사후 분석 결과	대학교 졸업>중학교 졸업	-	-

*** $p < .001$, ** $p < .01$, * $p < .05$

마. 아버지 직업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

아버지 직업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은 <표 11>과 같이 진로인식의 모든 하위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아버지 직업이 무직인 집단보다 전문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인 집단에서 자기이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 직업이 사무직인 집단이 아버지 직업이 기타인 집단보다 직업세계 인식과 진로태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아버지 직업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제공합	10.566	4.800	7.778
자유도	5	5	5
평균 제곱	2.113	.960	1.556
F	4.888 ^{***}	3.184 ^{**}	3.449 ^{**}
사후 분석 결과	전문관리직>무직, 사무직>무직 판매/서비스직>무직	사무직>기타	사무직>기타

*** $p < .001$, ** $p < .01$, * $p < .05$

바. 어머니 직업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

어머니 직업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은 <표 12>와 같이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직업세계 인식과 진로태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후검증 결과 어머니 직업이 전문관리직인 집단이 어머니 직업이 기타인 집단보다 자기이해 정도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2> 어머니 직업에 따른 진로인식 수준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제공합	5.878	2.060	5.860
자유도	5	5	5
평균 제곱	1.176	.412	1.172
F	2.640 [*]	1.342	2.576
사후 분석 결과	전문 관리직>기타	-	-

*** $p < .001$, ** $p < .01$, * $p < .05$

3. 자아정체감과 진로인식의 관계 분석

자아정체감이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3> ~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자아정체감이 진로인식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3> 자기이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자아정체감	.527	.059	.388
<i>F</i>	78.841***		
<i>Total R²</i>	.151		
<i>Adjusted R²</i>	.149		

*** $p < .001$, ** $p < .01$, * $p < .05$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이 자기이해 정도를 예측하는 모형의 F 통계 값은 78.841로 자기이해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t = 8.879, p = .000$), 자기이해 점수의 15.1%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날수록 자기이해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직업세계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자아정체감	.346	.051	.307
<i>F</i>	46.318***		
<i>Total R²</i>	.094		
<i>Adjusted R²</i>	.092		

*** $p < .001$, ** $p < .01$, * $p < .05$

<표 14>은 자아정체감이 직업세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F 통계 값은 46.318로 직업세계 인식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t = 6.806, p = .000$), 직업세계 인식 점수의 9.4%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높아질수록 직업세계 인식에 대한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진로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자아정체감	.479	.061	.350
<i>F</i>	61.846***		
<i>Total R²</i>	.122		
<i>Adjusted R²</i>	.120		

*** $p < .001$, ** $p < .01$, * $p < .05$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모형의 F 통계 값은 61.846으로, 진로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t = 7.864, p = .000$). 또한 이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12.2%로,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날수록 진로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자아정체감은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작업세계 인식, 진로태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자아정체감이 진로인식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하위변인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자아정체감과 진로인식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동포 초등학생에게 특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하위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년에 따라서는 6학년이 5학년보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라서는 진로인식의 모든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에 따라서는 자기이해와 진로태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진로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있어서 성별, 학년, 부모 동거여부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는 아직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학습과 미래 직업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자신의 삶과 진로설계에 필요한, 진로태도 영역의 발달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은 아버지 학력 및 부모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직업에 따라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모든 하위요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직업은 자기이해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 학력보다 부모 직업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중에서도 아버지 직업이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가정형편이나 어머니 학력에 따른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의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인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이 자기이해, 직업세계 인식, 진로태도 등 진로인식의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동포 초등학생의 경우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인식의 모든 하위요인이 높으며 자아정체감과 진로인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진로관련 개념들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진로관련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초등학교 진로교육 연구들은 대부분 그 대상이 한국의 학생들이었다. 물론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다수 있지만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특수한 사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문화권 혹은 문화적 배경이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혼합된 경우에 관해 세분화된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에게 최적화된 진로교육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적 배경을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 연구에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에 관해 다루어,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교육학 관련 연구자들에게 환기시켜 관련 후속 연구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기초 자료 혹은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진로교육 체계, 정책, 지도법 등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진로교육을 연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라는 한국문화와 중국문화가 혼합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수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은 더욱더 우리나라 교육사적으로도 최초이며 이러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기초적 자료가 필요한 교육연구자에게는 긴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고미나, 박재황(200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 행동 및 진로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69-85.
- 교육부(2016). **2016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 서울: 교육부.
- 권현하(2004).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주(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박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김민정, 정미경(2014).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인식 비교연구. **실과교육연구**, 20(2), 265-291.
- 김봉환, 김은희, 김효원, 문승태, 방혜진, 이지연, 조봉환, 허은영(2017). **진로교육 개론**. 서울: (주)사회평론아카데미.
- 김상일(2014).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국가정체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진(201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향상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관련변인 탐색: 교차-지연 패넬디자인.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김옥환(2001). 초등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분석.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우리, 박영희, 김정섭(2014).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8(2), 333-352.
- 김자성, 최준섭(2001). 초등학교 3·4학년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7(2), 91-106.
- 김충기, 황인호, 장성화, 김순자, 모종수(2016).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서울: 동문사.
- 김충기(1995).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한 진로판단·권고제의 활용방안. **교육논총**, 24, 33-63.
- 김충기(2001).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김충기(2004).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김형균(2014).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에 대한 연구. **실과교육연구**, 20(4), 237-257.
- 김희진(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 문승태, 김연희(2003).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애착 및 자아정체감

- 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205-220.
- 박미경(2009).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모형 분석.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박성미(2004).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상태에 따른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6(1), pp. 11-20.
- 박수길(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아청(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5(1), pp. 140-162.
- 박아청(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아청, 우채영(2008).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의사결정 수준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2(1), 69-85.
- 박정균(2011). 중국조선족 정체성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박행모, 방기혁(1999). 초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인식에 대한 연구. **실과교육연구**, 5(1), 91-103.
- 서민규(2013). **한민족 디아스포라 분석연구: 조선족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성낙철, 최준섭(1999).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5(2), 125-134.
- 송현옥(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간의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신종임(2010).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자아정체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신철(1997).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인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양한순(2015). 다문화주의 시대 귀환 중국동포의 문화적 시민권. **동북아 문화연구**, 45, 231-254.
- 어윤경, 부재울(2009).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5(1), 25-51.
- 우병국(2010). 남북교류 활성화와 재중동포사회의 역할: 현황, 한계 및 전망. **동서연구** 22(1), pp. 339-367.
- 유준상, 서우석(2013).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26(3), 165-183.

- 이미애(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 자아정체감, 심리적 독립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민주(2008). 재중동포의 상업 활동과 정체성 형성.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영대, 임언, 이지연, 최동선, 김나라(2004).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종범, 정철영(2005).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도구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79-105.
- 이종범, 정철영, 김봉환(2005). 중학생의 가족관련변인과 진로포부 및 진로의식간의 관계분석.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5(10), 785-813.
- 이종화, 김현숙(2012). 중학교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및 자아정체감에 대한 학급단위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191-217.
- 이진영, 김판준(2015).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모색. **제외한인연구**, 37, 1-29.
- 이현정(2014). 여중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돕는 포트폴리오 활용 수업의 효과와 자아정체감의 학년별 추이: 기술·가정 교과와 청소년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희선, 선우현정(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청소년학연구**, 22(6), 57-73.
- 임경희(2013). 초등학생의 다문화 여부와 성별에 따른 직업포부와 진로흥미 및 진로인식의 차이.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26(2), 67-89.
- 임정섭, 최영임, 김교현(2012). 대학생들의 가족관계 만족과 자아정체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1), 151-167.
- 장석민(2001). **진로교육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여진(2012). 학령기 아동의 진로인식능력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정채기(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조명실(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조봉환(2010).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초등상담연구**, 9(2), 235-250.
- 조봉환(201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와 진로인식. **초등상담**

연구, 11(2), 171-192.

조한숙(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최윤희, 김순자(201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0(3), 743-762.

한국고용정보원(2008).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개발 연구(2차연도) - 시범운영 결과물 중심으로** -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진로교육학회(2011). **선진 패러다임을 위한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허명철(2009). 세계화시대 조선족공동체의 진로. **민족학연구**, 8, 81-96

허정철(200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9(8), 433-441.

홍향연, 유태명(2008).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3), 49-64.

杜启明(2013). 小学职业启蒙教育实施的若干思考. **合肥学院学报(社会科学版)**, 30(4), 119-122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ew York, Norton.

Hoyt, K. B., Pinson, N. M., Laramore, D., & Mangum, G. L. (2004). **초등학교의 진로교육** [*Career education and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김충기, 김현옥 역). 광주: 한국학술정보(주). (원서 1973 출판).

<인터넷 사이트>

다누리(2017).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5&pageSeq=289&refGroup=4> (검색일: 2018.4.30.).

외교부(2017). 2017 재외동포현황(2017년 말 기준). www.mofa.go.kr/travel (검색일: 2018.4.30.).

법제처(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재단법 [시행 2015.6.2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25&efYd#0000> (검색일: 2018.4.3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2018년 3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247&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70&strAll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 (검색일: 2018.4.30.)

한국고용정보원(2017). 초등학교 진로인식검사.
www.work.go.kr/consltJobCarpa/jobPsyExam/youthEleDetail.do (검색일:
2017.4.30.).

투 고 일 : 2018.05.01
심 사 일 : 2018.05.25
계재 확정일 : 2018.06.08.

ABSTRACT

**The Relationship with Career Awareness and Ego-identity of
Korean-Chinese Elementary Students in China**

Hong, Mei-Song(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Yum, Chul-Hyun(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The specific aim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specialized career-education program for Korean-Chinese students registered in elementary school in China.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on 446 students among 5~6 grade students of G elementary school in Yanji city, Chin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all sub-factors of the career awareness such as gender, self-understanding about parent's job, recognition on occupation, and career-attitude. Also differences in self-understanding and career-attitude depending on the grade. Furthermore, there were differences in self-understanding depending on father's academic background and mother's occupation and difference in career attitude depending on parent's cohabitation.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factors of career awareness according to economic level and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Second, The ego-identity of Korean-Chinese elementary students gives positive effect on the sub-factors of career awareness such as self-understanding, recognition on occupation, and career attitude. The result suggests that more systematic career-orientation would be required for each sub-factor of career recogni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m to investigate ego identity to improve the career awareness of Korean-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it requires active support from China or the Korean government. Consequently, this results show that active support and continuous attention from both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China are needed.

*** Key words : career awareness, ego-identity, Korean-Chinese, elementary students**